

# 梅軒의 耽羅雜詠 研究

梁淳秘\*, 金允中\*\*

## 目 次

- I. 序 論
- II. 梅軒의 生涯와 時代의 背景
- III. 朝鮮時代 行刑과 流配
- IV. 耽羅雜詠에 나타난 文學世界
  - 1. 耽羅雜詠과 神話
  - 2. 耽羅雜詠史와 戀君
  - 3. 流配地 環境과 五賢祠
  - 4. 耽羅의 生活風俗
  - 5. 耽羅의 進上品들
  - 6. 流配와 그 詠懷
- V. 耽羅雜詠의 國文學史的 位置
- VI. 結 論

## I. 序 論

조선의 개국은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창건되었다. 이런 조선의 국정은 사류와 문운의 융성은 물론 사류정치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들 사류들이 신봉한 송유(송유)의 도학은 정치를 위한 도학이 아니라 도학을 위한 정치화의 폐단을 남게 되었다.<sup>1)</sup>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탐라문화연구소(연구회원)

1)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p.12.

정치적으로 君臣의 義理를 강조하고 봉당적 성향이 강했으며, 훈구파의 사장 중심의 사상에 만족할 수 없었던 신진 사림파들은 성리학을 지주로 삼아 성종조에 이르러 중앙정계에 진출,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들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서서히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정치 참여자의 수는 점점 늘어났으나, 관직의 보장은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르는 대립, 갈등은 구체적으로 史草를 통한 士禍로 나타났다. 1498년(연산군 4년)의 戊午士禍를 시작으로 기묘, 갑자, 을사 등의 사화로 많은 士林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는 조선조 500여년중 335년간 계속 되었다.<sup>2)</sup>

여기서 정치에 참여한 사류들은 패하게 되면 권력을 잃고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나 오지, 외딴섬에서 격리된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특히 濟州島는 격절성, 환해성, 협소성을 지닌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sup>3)</sup> 고려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유배지의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조선조 때 제주도는 최고형을 받은 유형수들이 유배되어 온 최악의 지역이었다.

정치적인 유배생활은 유배자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운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 국문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창작의 좋은 계기가 되어, 훌륭하고 찬연한 국문학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流配文學이란 유형수가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문학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4)</sup>

2) 이이화, 「한국의 파벌」, 어문각, 1984. p.85.

3) 梁淳泌, 앞의 책, p.3

4) 梁淳泌, 앞의 책, p.8 선학자들이 유배문학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趙潤濟, 「韓國文學概說」, 東國文化社, 1955.

②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③ 敍東軾, 「流配文學考」, 「文湖」 창간호, 1960.

④ 丁益燮, 「流配文學小考」, 「無涯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東國大學校, 1964.

⑤ 金永琪, 「流配文學論」, 「現代文學」, 통권 147권, 現代文學社, 1967.

⑥ 文瑛植, 「流配歌辭의 內容的 考察」, 「全南大學校 語文論集」 5집, 1969.

⑦ 梁淳泌, 「李朝流配文學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69.

⑧ 趙成桓, 「국문학과 직소관계」, 「군산교육대학 논문집」 7집, 1974.

⑨ 李相實,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74.

⑩ 朴辰義, 「韓國文學背景研究」 上, 下, 二友出版社, 1976.

⑪ 秦東赫, 「李世輔의 流配時調研究」, 「단국대학교 논문집」 15집, 1981.

⑫ 池鍾玉, 「流配詩歌研究」, 圓光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⑬ 梁淳泌,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⑭ 최상은, 「유배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문학연구」 3, 경원문화사, 1984.

⑮ 高定佑,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濟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6.

⑯ 梁淳泌, 「文學社會學的 시각에서의 流配文學考」, 「金起東박사 회갑기념논총」, 1986.

⑰ 梁淳泌 「유배문학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성격고」, 「朴堯順先生華甲紀念論集」, 1987.

⑱ 金基鉉, 「秋史散文中에 나타난 夫婦像」, 「고전문학연구」 제4집, 1988.

⑲ 康性能, 「冲庵 金淨의 海島錄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⑳ 金周坤, 「流配歌辭에 나타난 忠節意識의 樣相」, 「영남어문학」 제16집, 1989.

梅軒 趙觀彬은 신임사화(1722)의 전말을 상소한 것이 탕평책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1731년(영조 7년) 10월에 제주대정현에 유배되고 이듬해 1732년 6월에 석방되었다.<sup>5)</sup> 본 연구는 회헌 조관빈이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어 창작한 「탐라잡영」 22수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회적 방법론과 분석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작품을 고찰하고 그것이 지니는 국문학사상의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데 그 의도가 있다.

## Ⅱ. 梅軒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趙觀彬은 1691년(숙종 17년)에서 1757년(영조 33년)까지 在世한 정치가요 문신으로 자는 國甫, 호는 梅軒, 본관은 楊州, 우의정을 지낸 노론 趙泰采의 둘째 아들로써 李穡의 제자인데 駱黨에 속했으며 노론의 강경론자이며 反蕩平論者였다. 1714년(숙종 40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서 이듬해 검열이 되고 이어 부수찬, 수찬, 전적을 역임했고, 대간의 탄핵으로 한 때 파직되었다가 이조참의로 기용, 1719년(숙종 45년)에 승지, 1721년(경종원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조관빈이 활동한 조선 후기의 봉당정치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갈등이 치열하였다. 봉당이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여 정치적 기득권을 잡은 훈구파를 견제하면서 사람이 15세기 후반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은 훈구세력과 치열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봉당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16세기말 사람세력이 집권하면서부터이다. 즉 집권한 사람세력이 東人, 西人으로 갈라지면서 봉당사이의 갈등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때 李栗谷 같은 사람은 이를 근심하여 파쟁을 조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파쟁은 더욱 심해졌다.

사람의 집권으로 그 어떠한 봉당이라도 그들이 사람을 기반으로 하여 성리학적 체계를 이념으로 내세운다고 하면 용인되었으므로 봉당정치의 전개는 필연적이었다. 실제로 17세기에는 西人과 南人이 공존하면서 봉당 사이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되었다. 봉당정치가 어느 정도 건실하게 전개되면서 소수 봉당의 존재도 허용되고 그들에 의한 공개적인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여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 조화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척신세력이 크게 대두하여 성리학의 이념체계가 퇴색하면서 상대 세력의 공존을 생명으로 하는 봉당정치의 원칙은 점차 깨져 갔다.

재야의 사람은 집권하기 전까지는 훈구파세력과 정치적 갈등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을 군자로 자처하고, 권세로써 비리를 자행하는 훈구파세력은 小人의 당이라 규탄했으나, 16세기말 정치적 우세를 획득하면서 문제는 달라졌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그리고 노론과 소론으로 사람세력이 분파되었다고 해도 모두가 학맥에 근거하여 결성되어 그 어느 쪽이건 爲學修己의 노력을 통한

5) 「承政院日記」 690冊 영조 7년 10월27일조

군자의 당이란 면모를 보이려고 하고 있었기에 당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를 부정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특히 성리학의 궁극적 목표로서 정치에서의 公道의 실현을 주장하고 추구한다고 하는 각 봉당은, 이해를 가지고 상호 배제하는 私黨의 입장과는 公黨으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sup>6)</sup>

1680년(숙종 6년) 척신세력을 바탕으로 집권한 서인은 철저한 탄압으로 남인의 재개를 막고자 이른바 庚申大黜陟을 단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許積, 尹鑄 등 남인의 주요 인물이 거의 모두 주살되었다.<sup>7)</sup> 이에 따라 봉당정치의 바탕은 무너지고 상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체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黨人들은 歐陽修의 眞朋論에 의거하여 자신들은 眞朋이요, 상대방은 僞朋 또는 小人이라 공박하였다. 그리하여 봉당 사이의 역학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그 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정계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었다.

봉당정치의 밀폐적 현상으로서 나타난 일당전제의 추세와 정치의 무질서 속에 탄압은 보복을 불러 일으켰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야기하였다.<sup>8)</sup> 봉당사이의 역학관계가 깨지면서 특정 봉당의 비대화로 왕권이 크게 약화되고 노론 또는 소론이 전체권력을 행사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까지 그들의 당리당략과 결부되었다. 정치는 몇몇 閥閥家門에 의해 농단되었고, 정계 활동에서는 공론에 의한 봉당보다는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sup>9)</sup>

노론·소론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은 庚申大黜陟, 甲戌換局, 己巳換局 등의 연속된 정치적 사건에 이어 숙종의 후계인 왕위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하고 복잡하게 대립하여 忠逆의 시비분쟁으로 전개되어 갔다. 1722년(경종 2년) 辛壬土禍의 발생은 바로 치열한 왕위계승 문제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본래 숙종에게는 正妃 소생이 없었고 장희빈 소생(후에 경종)과 宮人 崔氏 소생인 延昞君(후에 영조)이 있었다. 1690년(숙종 16년) 숙종은 불과 세 살밖에 안된 장희빈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였으나 원래 병약하고 고질이 있어 춘추 30세 가까워도 후사가 없었다. 결국 병약한 경종을 옹호한 소론과 왕세제인 연잉군으로 하여 경종의 대리청정을 하게 하려던 노론이 소론에게 맹렬한 탄핵을 받아 이것이 빌미가 되어 金昌集, 李頤命, 李健命, 趙泰采 등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주요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신임사화이다. 소론은 노론을 대거 숙청한 후에도 경종의 毅逆까지 피하였다는 등의 음모까지 꾸미면서 노론을 공격하였다.

1722년(경종 2년) 조관빈의 생부 태채는 신임사화의 화를 입어 진도에 유배된 후 사사되었고, 1723년(경종 3년) 가족들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승빈은 제주 대정현으로 관빈은 나로도, <sup>10)</sup> 겸빈은 거제도 승빈의 처는 흑산도로 유배되었다.<sup>11)</sup> 이른바 온가족이 유배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6) 李泰績,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 『조선시대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p.41.

7) 『承政院日記』 276冊 숙종 6년 4월26일조, 5월5일, 20일조.

8) 성락훈, "한국당쟁사" 『한국문화사대계』,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68. 참조

9) 황원구, "閥閥政治" 『한국사』 (13), 1978, p.79.

10) 安鍾和, 『國朝人物志』 Ⅲ, "壬寅被謫珍島賜死" p.215.

11) 梁淳琰, 앞의 책, p.61.

영조가 즉위하자 조관빈은 1725년(영조 1년)에 풀려나와 제학에 등용되고 이어서 동지의금부사가 되었다.

당파간 분열 대립이 너무 심해지자 숙종조 당시부터 당파간의 정치세력의 균형을 꾀하여 이른바 탕평책의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에 영조, 정조와 같은 영주가 나와서 당파간의 알력은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상소와 탄핵이 잇따라 서로 분열되고 유배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특히 영조는 등극한 후 無備不黨, 王道蕩蕩, 無黨無備, 王道平平으로 탕평책을 전개하는데 탕평책이 정책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贊蕩派와 反蕩派 대립이 계속되자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탕평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에 그의 당색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하에서 조관빈은 1727년(영조 3년) 동지돈녕부사로 재직중 생부인 趙泰采를 비롯한 노론 4대신을 꾀적에서 삭제할 것을 상소하였다. 이어 1731년(영조 7년) 10월 대사헌으로<sup>12)</sup> 재직 중 신임사화의 전말을 규명할 것을 상소하고 소론의 영수 李光佐를 극론했다가 당파심에 의한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했다는 죄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었다.<sup>13)</sup> 조관빈은 제주에서의 유배생활 중 한라산에 등정하여 “대사헌에 있던 증 간언에 관한 일로 제주에 유배되어 이 한라산 절정에 올랐다(以大司憲言事 被謫登此絕頂)”이라는 磨崖銘을 남겼다.<sup>14)</sup>

관빈은 이듬해 6월 석방되었으나<sup>15)</sup>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740년(영조 16년)에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1742년(영조 18년)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뒤 1743년(영조 19년) 대사헌을 지내고 1744년(영조 20년) 호조판서를 역임하였으나 영의정 金在魯와 불화하여 다시 면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1746(영조 22년)에 예조판서에 전임되었다. 1753년(영조 29년) 대제학을 겸하다가 이 해 竹冊文의 재진을 거부하여 星州목사로 좌천되고 이어 三水府에 안치되었다가, 곧 단천에 移配된 후 석방되어 知中樞府事가 되었다.

회헌은 1757년(영조 23년)에 졸하였으며 시호는 文簡이고 저서에 「梅軒集」이 있다.

그의 從孫 趙貞喆은 정조를 시해하려는 역모에 연루되어 33년의 유배기간 중 제주도에서 28년이나 머물렀는데 원통한 심정을 「靜軒瀛海處坎錄」이란 시집으로 엮었으며 시의 서문이나 발문에 해당하는 산문 기록을 곁들여서 당시 제주도민의 생활에 관한 관찰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12) 崔完基 “18C는 봉당의 정치적 역학관계” 「정신문화연구」, 1986, 여름, pp.86~90 참조. 영조는 탕평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에는 그의 당색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였으며 영조 3년 12월에는 說書 俞最基를 파직시켜 문외에 출송하였고 동의금부사 金相玉을 극변으로 유배시켰다. 동왕 5년 윤7월에는 부수찬 鄭弘祥을 제주에 유배시켰던 것을 들 수 있다.

13) 「英祖實錄」, 7년 10월 丁巳조.

“敎曰趙觀彬初疏 已示微意 及其再疏 露出黨心 噫今之恢蕩 欲扶將亡之國勢 則渠雖急於私讐 獨不念公平 況今之此舉……(中略)……其職則都憲也 其所參酌 惜其職也 其竄于大靜縣”

1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濟州磨崖銘拓本特別展」 1989. p.33.

15) 「英朝實錄」, 8년 6월 甲子 “命放 趙觀彬之謫”

### Ⅲ. 朝鮮時代 行刑과 流配

조선 왕조의 성립 그 자체가 고려 왕조의 사회 제도 전반에 걸친 일대개혁을 위하여 일어난 민중 봉기의 사회 혁명이 아니고, 고려 왕조의 한 고위 관리가 선양이라는 방법으로 세운 邦家爲國의 易姓의 建國이므로 그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 태조는 그의 즉위 선언에서 "형조는 형법을 관장하여 송사·국문을 듣고, 순군을 다스려서 巡緝과 捕盜·禁亂을 관장하라."고 명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sup>16)</sup>

결국 조선 왕조는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을 그대로 본받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조선 시대의 행형 제도는 사실상 고려 말엽의 제도나 명나라 초기의 행형 제도와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 (가) 私刑

조선 왕조에서는 형식상으로는 公刑罰主義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私刑罰主義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 (나) 公刑

조선시대 공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벼슬아치의 신분에서 주거나 道士나 승려의 신분에서 주는 형벌로서의 〈閹刑〉이고, 또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正刑〉이다.

첫째, 율형: 여기에는 문무관의 벼슬아치들이 공사를 집행하다가 죄를 저지른 경우, 문무 관원들이 사사로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정한 기간에 걸쳐 벼슬아치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벼슬을 뺀 명예형의 금고 등 세가지 경우가 있다.

둘째, 정형: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5형이 있다.

① 笞刑: 이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작은 곤장으로 때리는 것을 말하는데 10도에서 50도까지 5등급이 있고 매등급에 10도씩 더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② 杖刑: 이는 태형보다 조금 더 무거운 죄를 범한 자를 큰 곤장으로 치는 형벌인데 60도에서 100도까지 5등급이 있고, 매 등급마다 10도씩 가감된다.

③ 徒刑: 여기에는 중노동을 시키는 도역과 군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충군의 두 가지가 있다.

16) 「太祖實錄」 태조 원년 壬申 7月 丁未日條 “自今刑曹掌刑法 聽訟鞠詰 巡軍掌巡緝捕盜禁亂”

이는 장형보다 조금 더 무거운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이다. 복역 기간은 대개 1년에서 3년까지 5등급이 있다.

④ 流刑: 이는 본고와 관계가 깊은 유배 형벌을 의미한다. 중범자들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는 처해지지 않는 자들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서 길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형벌이다. 여기에는 2천리에서 2천5백리 3천리에 이르기까지 3등급이 있고, 매 등급마다 5백리가 가감된다. 그리고 유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아울러 처해진다. 또 이 유형에는 범 죄인의 모든 가족을 고향에서 1천리 밖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遷徙와 벼슬아치에게 주어지는 형벌로 어느 일정한 지역을 지정, 격리하는 安置 등이 있다. 이 안치는 다시 죄인의 고향에 안치시키는 本鄉安置와 가장 가혹한 격리 조치로 絶島安置, 집 주위에 가시나무 따위로 울타리를 하여 그 안에서만 살도록 하는 중연금으로서의 圍籬安置가 있다.

조선시대 유배지로 이름 높았던 지역을 인명사전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가장 빈번히 유배지가 되었던 곳으로는 섬들이 많은 전라남도가 단연 첫째이고 경상남도가 둘째, 평안북도가 셋째, 경상북도가 넷째의 순이다. 한편 제주도 대정현은 유배된 사람의 수가 34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 유배지로서의 대표 지역이었다.<sup>17)</sup>

일단 귀양길이 결정되면, 그 죄인의 벼슬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또는 그 죄의 크고 작음과 당시의 정치 정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오랑의 서슬 푸른 감시와 재촉을 받으며 호송된다.

인조반정에 의하여 폐워된 광해군은 도감별장의 호위 아래 배 위에 포장을 겹겹히 막아 사면을 보지 못하게 하여 바닷길로 수개월 만에 제주섬에 도착하기도 하였다.<sup>18)</sup> 경우에 따라서는 관가의 艦車에 실려서 옮겨지기도 하고, 죄인의 사사비용으로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가기도 하며, 종과 심부름꾼까지 거느리고 가기도 하고, 지나가는 고을의 원들이나 친지들이 보태주는 여비를 받기도 하는데 적소에 도착한 뒤에도 그곳의 관가에서 지정해 주는 집에서 지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죄인 스스로가 머물고 싶은 민가를 골라서 호사스럽게 먹고 입는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을 바탕으로 고생을 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당쟁이 치열했던 조선 중엽 이후에는 귀양살이 오는 사람의 벼슬이나 색목에 따라서 현지의 관장들은 그 죄인이 언제 풀려서 어떤 요직에 다시 돌아가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심 양면으로 동정과 원조를 아끼지 않은 예가 많았다.

17)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pp 20~21

18) 鄭炳昱 역 「제해반정록」 「文學思想」 3호 1972.12, pp 473~493

#### IV. 耽羅雜詠에 나타난 文學世界

梅軒 趙觀彬의 「耽羅雜詠」을 검토하기에 앞서 조선조의 문학관을 대강 살펴보는 일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조선조 문학관의 대전제는 道文一致의 관념이다. 조선조의 건국이념 자체가 성리학에 근거를 둔 이상 성리학의 문학관인 도문일치는 역시 자연스럽게 조선의 문학적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도문일치란 대체로 문장은 도를 담는 그릇이라는 전체 위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되었지만 사실상 그 관념 속에는 賈道論과 載道論이라는 상이한 견해의 흐름이 있어 왔다.

관도론은 이른바 문이관도를 주장하는 고문파의 입장으로서 이들은 문이 도를 밝히는 수단이라는 전체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와 문을 분리시켜 보고자 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관심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일면이 있다. 이러한 관도론적 문학관은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사상파의 문학관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관도론적 문학관의 배경에는 宋代 성리학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조화로운 세계관 및 낙관적 인간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도론에서 강조하는 道는 인간의 도덕적 완결성을 지향하는 현세적 규범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재도론은 이러한 道를 배타적으로 절대화 시킴으로써 도가 지닌 규범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재도론은 현실에 가장 밀착되어 효용론의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문학의 구체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性悟之正과 같은 절대적인 척도를 내세움으로써 문학은 도의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도론적 문학관의 주장과 논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를 이퇴계와 이율곡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17세기로 접어들어 宋時烈에 이르면 재도론적 문학관은 이 시기에 대두한 여러가지 사상적인 다양화의 경향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등장하며, 재도론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명의 몰락과 청의 등장, 안으로는 사상적인 분파와 병행한 치열한 당파싸움으로 말미암아 주자학의 화이론적 질서관 및 예론은 핵심적인 논의의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념 뒤에는 주자학적인 명분론 내지는 전통론적인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에 있어서도 재도론적 문학관은 여전히 시대를 지배하는 문학관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문학사상에 대한 재도론의 반격 또한 치열한 것이었다. 사상적인 반론과 병행하여 등장한 새로운 문학관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재도론적인 반론은 이퇴계나 이율곡의 경우보다 더욱 경화된 규범론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양상은 한말까지 계승되었다.

회헌 조관빈은 영조 때 文衡이었다. 문형은 국가의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핵심주체이고 인재등용의 관문인 과거시험을 주관하였다. 곧 문형은 당시 권력을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이었고 이들의 인적사항과 당색이 정권의 추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조관빈은 당색으로 보아 송시열의 노론 계열이면서도 강경론자에 속한다. 회헌은 같은 당색을 계승한 사람이므로 일단은 우암 송시열의



재도론을 계승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회헌은 자신에게 감흥을 주는 대상이 있을 때 시가 되는 것이지 기교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한 吳濩과 같은 입장으로 '無景不吟 無物不詠'이라는 시론<sup>19)</sup>을 표명한 바가 있다.

趙觀彬의 「회헌집」 권4에 수록되어 있는 탐라잡영은 모두 22수이다. 이 22수의 잡영은 한시의 형태면에서 각 수가 7언 절구로 되어 있다. 그는 제주 유배 기간에 유배 생활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정서를 22수의 잡영에 표출하였다.

흔히 잡영과 雜詩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잠시란 예사람이 지은 시 작품 중 제목을 상실한 작품을 편찬할 때 이름지어 잠시라고 한다. 한편 잡영이란 雜吟이라고도 하는데 갖가지 사건이나 계절적 느낌, 심경의 변화 등을 있는 그대로 읊은 시가로서<sup>20)</sup> 특별한 제목이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쓰여지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시를 지움에 있어 일정한 제목이나 내용 형식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사건, 사물, 심경 등을 접했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표현해 놓은 시가를 잡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잡영이 한시의 절구·율시 등과 다른 점은 시의 형식에 있어서 그리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절구·율시 등은 사물이나 사건이거나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틀에 담아야 하는 제약성이 따르지만, 잡영은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러한 시의 형식은 竹枝詞類의 7言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시의 형태이다.

「梅軒集」에 수록되어 있는 탐라잡영은 제1수에서 제22수까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라잡영은 대체로 첫째, 耽羅 詠物과 神話(其 1, 2, 3), 둘째, 耽羅 詠史와 戀君(其 4, 5, 6), 셋째, 流配地 환경과 五賢祠(其 7, 8, 9), 넷째, 耽羅의 生活 風俗(其 10, 11, 12, 13, 14, 15), 다섯째, 탐라의 진상품들(其 16, 17, 18), 여섯째, 流配와 그 詠懷(其 19, 20, 21, 22) 등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 고찰해 볼 수 있다.

## 1. 耽羅詠物과 神話

### 첫째 장

탐라는 가장 거친 땅  
사면의 바닷물은 아득히 구름에 닿네.  
남쪽으로 유구, 동쪽으로 일본  
서쪽으로 중국의 항주, 소주라네.

### 其一

耽羅一城最荒垠  
四面滄溟水接雲  
南則琉球東日本  
西惟中國杭蘇云

탐라잡영의 서시로서 절해고도인 제주섬의 위치를 읊고 있다. 제주섬은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끝없는 바다요, 나갈 길은 막막하다. 말 그대로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섬 환해고도

19) 「梅軒集」 권15, p.3 李白川梅花詩序

20) 新潮社 「改訂新潮國語辭典」 日本 新潮社, 1977, p.799.

인 것이다.<sup>21)</sup> 증원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격렬한 지역인 항주와 소주는 제주섬의 서쪽에 있다는 현세적 의미보다 회현이 그만큼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남단의 고도에 유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회현은 자신의 처지를 바로 고도처럼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제주섬에 유배된 경우 대개 절도 위리안치가 많았다. 그것은 고립된 섬에서의 생활 자체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다.

둘째 장

한라산이 검게 솟아 형세는 널따랗게  
큰 바다 중에 솟아나와 우뚝하구나  
예부터 영주라 부르더니 뜬 소문이 아니구나  
반공에서 생활며 학과 함께 노닐 신선을 만날 것 같구나.

其二

漢擊黑立勢周遭  
大海中間湧出高  
舊號瀛洲非浪語  
半空笙鶴有仙曹

대해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의 선경을 노래하고 있다. 제주섬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인 한라산의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보고 주나라의 태산과 비교할 만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또 검은 빛으로 다가오는 한라산은 회현을 충분히 위압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신선의 무리를 이루어 있고, 신선이 살고 있다고 해서 삼신산, 영주산이라 이름지은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셋째 장

하늘이 신인을 내니 토굴이 열리고  
기연인가, 동녀가 돌상자 타고 왔네  
구름처럼 백세에까지 흘러내려 삼성이 전하니  
정성스런 제사 이제껏 이어오니 묘당이 퇴락하지 않았네

其三

天降神人士穴開  
異綠童女石函來  
雲仍百世傳三姓  
血食于今廟不頽

제주섬의 위치, 한라산 등 詠物에 이어 삼성신화를 읊은 시이다. 李元鎮의 「耽羅誌」에 따르면 “삼성혈은 제주에서 남쪽으로 3리 쯤 떨어진 곳에 있으니 옛이름은 모홍혈이다. 「고려사」와 고기에 이르되 애초에 사람이 없더니 땅에서 세 신이 솟아났다. (지금의 한라산 북녘 기슭에 「모홍굴」이라 부르는 혈이 있는데 이것이 그곳이다) 만이가 양을나요, 버금이 고을나며, 셋째가 부을나이다. 세 사람은 거친 두메에서 사냥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목함이 동해안에 떠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석함이 있는데 빨간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21) 內務部, 「島嶼誌」, 1973, p.10.

함을 여니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세 처녀와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 씨앗이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벽랑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따님을 남으시고 말씀하시되 서해중의 산기슭에 신자 세 사람이 강탄하시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라 하여 왔습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으셔서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었다. 양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일도라 하고 고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이도라 하고 부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삼도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게 되니 날르 백성이 많아지고 부유해 갔다."<sup>22)</sup>

제주섬의 개벽과 삼성신화가 기술되어 있는 이 시는 제주섬이 개벽되고 삼성의 신인이 내려와 제주섬에서의 혈거생활이 시작된 이래 오랜 풍상을 겪어 살아 왔지만 삼성의 후손들이 춘제(4월 10일), 추제(10월 10일), 혈제(12월 10일) 등 정성스레 제사를 모시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묘당은 쓰러지지 않았음을 노래하고 있다.

## 2. 耽羅 詠史와 戀君

### 넷째 장

하룻밤 객성이 먼 하늘에 비추더니,  
계림천리가 통선을 시작하였네.  
여지껏 은 세상이 탐라라 부름은  
고청이 바다 건너 해부터 전해오는 것일새.

### 其四

一夜客星動遠天  
鷄林千里始通船  
至今輿地耽羅號  
傳自高濟渡海年

신라와 교류한 고청의 일사를 읊은 시이다.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여 오다가 외부와의 교섭을 한 것은 고청이 신라에 가서 조공을 한 이후부터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탐라라 불리어 왔다. 본토와 교류를 하기 이전의 제주섬은 환해성, 격절성 때문에 자급자족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어 사회는 정체되고 전통 문화가 강하게 보존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주의 역사에서 고청의 일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22) 李元鎮 「耽羅志」 古跡條

三姓穴 在州南三里 卽古毛輿穴 高麗史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鎮山北麓有穴曰毛輿是 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一日見紫泥封木函浮 至東海濱就 而 開之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 王生此三女云 西海中岳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 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 乘雲而去三人以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日 第一徒 高乙那所居日 第二徒 夫乙 那所居日 第三徒 始播五穀且 牧駒犢日就富庶

다섯째 장

조석으로 신라 백제에 속했다가 고려에 항복하고  
 또다시 원에 복속되어 피해헤지네  
 최영장군 한번 올 때 험한 물결 숨죽이니  
 당차 달이 선착장에 뜬을 말해주네.

其五

朝羅暮濟俄降麗  
 又附胡元使自疲  
 崔瑩一來鯨浪息  
 將圖猶說月津涯

제주는 처음에 탐라국이였다.<sup>23)</sup> 고려 숙종 때에 이르러 고려의 한 군으로 편입되어 통치물 받았으며, 몽고족의 침입으로 100여년간 외세의 혹독한 시달림을 받기도 하였다. 위의 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읊은 영사시이다.

제주는 왜구의 침입과<sup>24)</sup> 몽고족의 점령으로 그 피해가 컸으며, 영향도 많이 받았다. 몽고의 풍습과 말이 지금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고족의 영향은 제주 사람들의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끼쳐 제주인은 섬사람들의 기질과 대륙적인 기질을 함께 지니게 되었다. 몽고가 물러가고 나서는 왜구의 침략이 극심하였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영이 바다를 건넌 것만 보아도 그 피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잘 알 수 있다.

이 시는 단순히 제주가 고려와 몽고에 복속되어 통치당한 사실만은 읊은 것이 아니라 그 통치로 인한 영향까지도 짚들어 보고 있는 시이다.

여섯째 장

태조이래 성덕을 베풀더니  
 주가의 예악, 우의 산천이여,  
 크도다 먼 곳 풍속이 살기에 편하다고 마음 먹으니  
 백성이 감읍하고 명릉에 은하가 편편히 흐르네.

其六

太朝以來王化宣  
 周家禮樂禹山川  
 大哉遠俗懷綏意  
 民泣明陵雲漢篇

조선조 치국이념인 성리학이 내세운 명분 가운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공자의 춘추대의 정신으로서 군신간의 의리가 포함된다. 군신간의 의리는 곧 충으로 나타나며 조선의 선비라면 당연하게 갖추어야 할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

충은 조선조의 통치원리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상이었다. 이것은 유배지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유배인의 경우라 하여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리어 사회는 불의에 항거하는 의리의 투쟁이라는 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충의 정신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유배문학은 유배지에서 겪는 고초와 유배생활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도 군왕에 대한 일편단심

23) 「元史」耽羅傳, “耽羅高麗與國也”

24) 金錫翼, 「耽羅紀年」 “忠惠王二年 倭寇南鄙 明年以七百餘艘來侵”

의 충정을 더 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배지에서 겪은 온갖 고초와 고독감에서도 임금 향한 마음은 불변이어서 한결같이 충신연군지사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sup>25)</sup>

이것은 유배 문학의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다.<sup>26)</sup> 유배지에서도 자기의 결백한 심정과 충성심을 호소하여 멀어진 군왕의 총애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곳곳마다 스며 있다. 본 시의 정서도 이와 같다.

회헌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이래 역대 군왕들이 성덕을 베푸니 나라안의 태평함이 마치 周나라의 예악과 禹나라의 산천의 모습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나라안의 태평성대가 계속되고 편안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회헌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회헌은 신임사화로 인한 문제를 상소하다가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회헌의 집안은 이 사건으로 滅門에 가까운 화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명통에 묻힌 숙종대왕을 생각하며 밤하늘에 편편히 흐르는 은하를 보고 성운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회헌은 『感君恩』<sup>27)</sup> 其一에서 其四까지 詩題가 상징하듯이 감군은하는 단심을 표백하기도 했다.

### 3. 流配地 環境과 五賢祠

#### 일곱째 장

목사가 방백의 임무를 겸하니  
병사와 백성은 오롯이 한 관청에 부속되네.  
파도 잔잔하고 상도봉화 경계신호 알림이 없으니  
은종일 생가를 곁들여 굴원에 취하네.

#### 其七

牧使仍兼方伯尊  
兵民全屬一衙門  
波清桑島烽無響  
盡日笙歌醉橋園

과거 제주도에서는 목사가 부임하여 와서 병권만을 관장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무까지도 처리하였다. 곧 관찰사의 직능까지를 수행했던 것이다. 부임하는 목사에 따라서는 선정비를 부임하는 즉시 세우고 중앙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 갖은 수탈과 학정을 일삼았다. 그러한 목사들은 제주섬 사람들의 저항을 받아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다.

병사와 백성이 모두 한 아문에 속해 있으면서도 왜적의 침입도 없고 종일토록 생활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제주의 모습은 그런대로 평온한 분위기였다.

유배당한 고통도 서러운데 유배지의 사회마저 어지러우면 회헌 자신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긴장하게 되므로 자기가 유배당한 곳이 태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조용히 앉아 책을 읽으면서 생가가 울려퍼지는 것을 듣노라면 굴원마저도 그 노래소리에 취하여

25) 李相寶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p.17.

26) 梁淳秘, 앞의 책, p.39.

27) 「梅軒集」 권4 참조.

즐거워한다는 착각을 할 때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덟계 장  
 대정이 서쪽에 있고 경의가 동쪽에 있다지만  
 벼슬살이가 쌀쌀하여 귀양살이 같다네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이라곤 바람과 습기뿐  
 고통이 이 같을진대 누가 입기까지 견디며 기다리겠는가.

其八  
 大靜在西旌義東  
 官居蕭索謫居同  
 終年飽喫惟風瘴  
 苦況誰堪瓜限窮

회현이 유배된 대정현은 종종 때 김석철의 장계에 의해 유배지로 정해진 곳이다.<sup>28)</sup> 이 대정현은 예부터 토지가 척박하고 바람 많기로 이름난 곳이다. 그래서 '대정사람이 없었던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대정의 모슬포를 '못살포'로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 유배된 회현은 대정 사람들의 인심만을 탓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척박한 땅, 모진 바람이 부는 대정현에서 벼슬하기가 유배살이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벼슬의 어려움을 유배살이의 고통과 동일시 하고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이라고는 바람과 습기뿐, 풍장에 시달려 온갖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 고통스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sup>29)</sup> 유배된 우울한 심적 정황에 겹쳐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모질고 끈질긴 삶을 이어가는 제주섬 사람들의 아픔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홉계 장  
 막대·미루리로 언제면 바다를 건널손가  
 굴림추석과 오현의 사당이어  
 그 이름 높기로 우암선생이어,  
 도학의 문장이 백대에 사표가 되리라.

其九  
 杖屨何年此海陔  
 橋林秋色五賢祠  
 高名最是華陽老  
 道學文章百代師

기약할 수 없는 유배생활에서 언제면 풀릴 것인가 애소하면서도 제주의 현덕으로 기리는 오현을 모신 오현사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영사시이다. 오현은 조선조 때의 국현으로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동계 정은, 청음 김상헌, 우암 송시열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 충암 김정, 동계 정은, 우암 송시열은 제주에 유배되어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중 冲庵 金淨의 「海島錄」을 비롯한 유배 한시와 그의 「제주풍토록」은 뛰어난 문장력으로 문학사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淸陰 金尚憲의

28) 「中宗實錄」 권19, 8년 계유 12월 “京中犯罪定屬人應入濟州者 首屬于此以實殘縣”

29) 金淨 「제주풍토록」, 李健 「제주풍토기」 참조.

「南槎錄」은 제주섬의 풍속, 사회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회현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이 한편의 시에 실어 오현처럼 백대의 사표가 되는 글을 남기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4. 耽羅의 生活 風俗

##### 열계 장

섬의 세족들이 모두 궁하게 사니  
 여덟 아홉은 몸소 밭 갈고 겨우 한 돌이 서생이라네.  
 그나마 능한 것이라곤 평생 '부'나 많이 짓는 것인데  
 별과는 너무 뜬해서 10년도 넘는다네.

##### 其十

島中世族摠窮居  
 八九躬耕一二書  
 長技平生多作賦  
 別科稀鬪十年餘

제주섬 사람들이 궁핍하게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족들 또한 궁하게 살아서 거의 다수가 밭을 갈며 생활해 나갔는데 세족 서생은 드물었다. 그 이유는 나라에서 내려주는 국록도 문제가 되지만 불모의 땅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몇몇 글을 읽는 세족도 있었으나 그들도 마냥 글만 읽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평생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하는 제주섬 사람들의 모습을 세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사대부의 입장에서 볼 때 선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풍속이 아름답지 못함을 의미한다.

##### 열한계 장

풍속에 힘겨루기, 활다루기 좋아하니  
 사렵하기는 능히 어지러운 돌 틈새도 내달을 수 있다네  
 홍지를 감추어 오니 급기야 다 새어 흰머리되니,  
 모르케라 사마도 사사로운 공격을 운영하는 것인지

##### 其十一

俗風豪健喜操弓  
 射獵能馳亂石中  
 紅紙藏來仍白首  
 不關司馬政私公

생활풍속에 제주섬 사람들은 힘겨루기와 활쏘기를 잘 한다. 아무리 활쏘기를 좋아한다고 하여도 사사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물의가 빚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사마도 사사로움 공격을 운영하는 것인지, 사마의 할 일에 빚대어 노래하고 있다.

조선후기 관직의 매매와 돈으로 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무능하고 무관심한 것을 풍자하고 있다.

##### 열두계장

문무에 원래 높은 벼슬을 한 자가 드물고  
 한 번 벼슬을 재수받으면 오랫동안 한가하네.

##### 其十二

文武元來少顯官  
 一經除目便長閒

오로지 성에는 온 집안이 나가지 못하고  
부녀는 편벽되어 바다 건너기 어려워 한다네.

專城未得全家赴  
婦女偏嫌渡海難

제주섬 사람들은 환경 탓인지 문무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드물고, 그것도 한 번 낮은 관직을 재수하면 그것으로 오랫동안 지낸다. 출타하여 꿈을 이루려 하여도 바다 건너 나가기를 꺼리어 어쩔 수가 없다.

위 시는 제주섬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열셋째 장  
사냥꾼들과 마소치는 집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루고  
토끼털 모자, 개가죽 옷을 걸치니 노소가 섞여 모르겠구나.  
괴상하게 찌르는 듯한 사투리는 뱀새가 지저귀는 것 같고  
새 울음 은종일 들으니 도리어 어지럽구나.

其十三  
獵犬牧戶自成村  
兔帽狗衣老少渾  
怪殺方音如蝸舌  
啾啾終日聽溫煩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하여도 제주의 화전민들은 개가죽 옷을 입었다. 이는 실제 생활의 궁핍상과 화전 생활의 일상성을 보여주는 좋은 한 예가 되고 있다. 과거의 사실적인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미화를 거부하게 만든다.

남녀 노소가 모여사는 촌락에 가서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 소리가 마치 울폐미 소리와 같다고 한 것은 제주 방언이 본토의 말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sup>30)</sup> 무슨 말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아 듣지 못하므로 회현에게는 마치 지저귀는 뱀새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외롭게 구슬피 우는 새소리는 유배인으로 하여금 한없는 감회에 젖게하여 잠시나마 잊고 있던 번뇌에 사로 잡히게 한다. 여기서 회현은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지 않은 제주섬에 유배된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을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 조용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 시는 제주섬 사람들의 생활 속에 동화되지 못하는 회현 자신의 눈에 띄는 풍속의 생소함을 읊은 것이다.

열넷째 장  
시골 아낙네 처마 부실하여 몸을 드러내고  
먼 곳 샘물을 길러 허벅지고 간다네.  
처집 한 집안살이 고통스러워  
해 저물면 절구짚는 노래 원성같이 들리네.

其十四  
村女露身裙不成  
遠泉汲處負瓶行  
兩妻一室生痛苦  
日暮杵歌多怨聲

30) 金淨, 「제주풍토록」, 「土人語音 細高如針刺 且多不可曉 居之既久 自能通文 右云兒童解蠻語此也」



제주섬의 아낙과 어려운 가정 생활을 읊은 시이다. 제주도는 건천이어서 식수난이 심했다. 아침저녁으로 허벅을 지고 물을 길어 와서 방아로 쌀을 찼을 때 밭짓는 게 일과의 시작이다. 제주섬의 아낙네들은 부지런하다고 하나 그렇지 않고는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었기에 숙명적이었는지 모른다.

맷돌방아노래의 그 음조가 애달프게 들리고 방앗일 역시 괴로워 그것이 원성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읊지의 품속에도 “방앗노래 소리는 괴롭게 들린다. 아낙네가 절구를 찼을 때 반드시 방앗노래를 한다. 그 음조가 심히 괴롭게 들린다. 맷돌방아를 할 때도 그렇다”<sup>31)</sup>고 한 것을 보면 회현의 위의 시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다수의 유배인들은 제주에 유배된 그 울적한 심정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면, 첫째 자신의 인생과 제주의 자연에 대한 관조를 노래하였고, 둘째 이국적 정서, 풍물, 풍습, 인정 등을 유배인 특유의 정서로 노래하기도 했는데 위의 잠영은 곧 이국적 정서, 풍물, 풍습, 인정을 읊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시골 아낙네가 치마가 부실하여 몸을 드러내었다는 표현은 섬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처첩이 한 지아비와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살면서 겪는 고통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제주여인들은 그러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제주민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맷돌방아노래”를 통해 잠시나마 잊고자 하였다. 회현은 그러한 원성과도 같은 애처로운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제주섬 아낙들의 처지와 고통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sup>32)</sup>

위의 시는 제주섬 아낙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표현하면서 내재적인 연민을 보이고 있다.

열다섯째 장

노인성이 남극에서 밝게 빛나고  
백살난 시골 노인 기력이 단단하다.  
향사에는 봄가을없이 노인들이 모이니  
칠십난 이들을 오히려 소년이라 여긴다네.

其十五

老人南極耀團團  
百歲村翁氣力完  
鄉社春秋鳩杖會  
七旬猶作少年看

제주의 노인들이 한가로이 향사에 모인 모습을 읊은 시이다. 노인성의 별빛이 밝게 빛나는 것은 건란이 없어 화평스런 상황임을 말해 준다.

이렇게 태평한 사회에서 아직도 기력이 단단한 노인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향사에 모이고 칠십난 노인들을 오히려 소년이라고 여길 정도로 제주섬 노인들의 장수함을 부러워하고 있다.

31) 「邑誌」, “杵歌聲苦 女人作隊 禱春必發杵歌 音調甚苦旋磨亦然”

32) 梁淳秘, “流配漢詩에 나타난 現實認識”, 「梁重海 박사회갑논총」, 1987, p. 264.

## 5. 耽羅의 進上品들

열여섯계 장

은 집마다 꿀열어 늦서리 맞으니  
크고 작은 차이마다 맛 각각 향기롭구나.  
해마다 포장하여 항상 일찍 진상하면  
임금은 여가에 근신들에게 맛보도록 하네.

其十六

千家柑橋九秋霜  
大小參差味各香  
每歲厥包常早運  
君餘細許近臣嘗

제주의 명산인 감귤을 읊고 있다. 제주섬은 한반도 유일의 감귤의 적지이다. 이것은 옛적 江南으로부터 이식되었다고 전한다. 이 감귤은 고려 중기 이래 재배가 증대되어 조선조에 들어서자 진상품으로 강징된다. 李晔光(1563~1628)은 「芝峰類說」에서 “我國濟州及南邊海邑 產橘柚處 稅有徵斂 人以爲苦 多研去之即橘稅也”라고 했다. 감귤은 서리를 맞았을 때가 더 맛이 난다. 크고 작은 귤을 생산하기 위한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섬에는 국유 과수원이 21개소나 있어 여기서 채집하지만 부족한 것은 민유과수원 20개소에서 충당케 했으니 민폐가 막대했다. 감귤 진상은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되었다. 결실하기 전부터 그 예상 수확량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일, 수확한 뒤에 그것을 진상하는 일, 그리고 관리들의 가렴주구 때문에 제주섬 사람들의 고통은 심해 감귤 나무를 잘라서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다.

세조 원년 12월에 제주 목사에게 유지하기를 감귤은 종묘에 천신하고 손님을 대접하므로 그 용도가 매우 결실하다고 하였다. 현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금귤, 유감, 동정귤은 상품이고 유자 산귤 등은 하품입니다. 민가에서는 양지 바른 울타리 안에 심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잘 밟으니 뿌리가 튼튼하여 결실도 좋습니다. 관의 과원은 너무 많이 심어서 뿌리가 뻣뻣하고 무성하여 벌레가 쉽게 생기므로 공은 많이 드나 결실은 민가에서 재배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가에서는 공물을 채우기 위하여 민가에서 결실한 것을 여름에 치부했다가 가을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엄형으로 다스리니 민가에서는 귤나무 심기를 즐기지 않고 심은 것도 뽑아 버리기까지 하니 다음부터는 잘 재배하는 자에게는 부역을 면제하여 구휼하고 관에서 스스로 운반하여 섬사람들을 수고롭게 마시옵소서.”라고 하였다.<sup>33)</sup> 이에 민폐를 금지하는 교시가 있었으나 민폐는 그치지 아니하여 중종 21년에는 관이 과원을 설치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군인들 정도였다.

귤 진상은 9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까지 20회에 나누어 10일 간격으로 진상하였다. 진상할 귤을 배에 싣고 바다로 떠났다가 琉球國에 표류한 일도 있었다. 성종실록에 전하는 제주인 김비

33) 「世祖實錄」 원년 12월 병인조 이런 사정은 「正祖實錄」 6년 정월 신해조에서도 볼 수 있다. 제주에 는 옛부터 감귤이 특산물이었으며 趙貞喆은 제주유배 때 「橘柚品題」란 시를 지었다.

의, 강무, 이정 세 사람의 표류는 역사적 자료로 또는 이색적인 수필문학으로 크게 공헌하고 있다.

“우리들은 정유(성종 8년 1477) 2월 초하룻날에 玄世修, 金得山, 李清敏, 梁成突, 曹貴率들과 함께 진상할 굴을 배에 싣고 바다로 떠났다. 그런데 추자섬을 향할 무렵 동풍이 불어서 서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제6일까지는 바다는 맑고 푸르렀고 제7일 8일의 하룻동안은 바다가 흐렸다. 제9일에 서풍을 만나서 남쪽으로 표류했는데 바닷물은 맑았다. 제14일 되는날 한 작은 섬이 보여 그 섬에 오르려고 했는데 마침 노가 부러지고 배가 깨어지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배에 실었던 물건들도 모두 잃어 버렸다. 우리 세 사람(金非衣, 姜茂, 李正)은 판목 한 조각을 붙들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행히 고기잡이 배 두 척을 만났는데 각각 네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배에 실어 주어서 살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데리고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은 윤이시마라고 했다.<sup>34)</sup>

위의 인용을 통해 제주에서 본토로의 굴진상을 위한 해상 왕래는 생사간의 문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굴 진상은 9월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2월까지 20회에 나누어 10일 간격으로 진상한다. 조정에서는 진상한 갑골이 도착하면 군왕은 근신들에게 맛보게 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황감시라는 특별한 과정을 열기도 했지만 그 굴을 진상키 위해 겪는 제주섬 사람들의 고통은 대단한 것이었다.

열입곱계 장

대원은 좋은 종마 기주의 것과 견줄만 한데  
만필의 종마가 비단구름 같이 펼쳐졌네  
목사가 해마다 공물로 보낼달을 점점하니  
하늘이 내신 연주황빛 종마로구나.

其十七

大苑其種冀州方  
雲錦離披萬匹良  
考牧年年修職貢  
天才居半色朱黃

제주말 진상품을 읊고 있다. 목사가 말을 해마다 점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상마에 신경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 11년(1429)에 제주섬의 목장 10소장으로 나누어지고 양마목축하였다. 정조 16년 삼읍지를 참조하면 말이 1소장에 878필, 2소장에 792필, 3소장에 429필, 4소장에 573필, 5소장에 1094필, 6소장 1,134필, 7소장에 440필, 8소장에 362필, 9소장에 510필, 10소장에 1,103필, 녹산장에 1,573필 등이 목축되었다. 지방의 목민관이 조정에 상납할 진상마에만 신경을

34) 「成宗實錄」, 권105, 10년 6월조.

俺等 丁酉二月初一日 與玄世修 金得山 李清敏 梁成突 曹貴率 陪受進上 柑子 同騎一船 開洋向楸子島 忽值東風大起 西向漂流 自初發生至第六日 海水澄碧 自第七日至八日 行一晝夜 渾濁如泔 第九日 又遭西風 向南漂流 海水澄碧 第十四日 望一小島 未及泊岸 坳折船毀 餘人皆溺死 裝載盤纏 亦皆滄失 俺等三人 騎坐一板 漂蕩間 適有漁舟二隻 各有四人 騎坐 見我輩收載而去 到島岸 島名閔伊是磨 其俗謂島爲是磨。

쓰고 제주섬 사람에게서 빼앗은 진상마들이 목사 개인의 사리와 영달에 이용되었다.

열여덟째 장  
 나뻘 진주 대모가 갖추어 있고  
 청피 백랍 석중유도 있다네.  
 진기한 미로는 이 땅을 일컬으니  
 이같은 물산의 유래는 팔도에 없겠네.

其十八  
 螺貝纈珠玳瑁俱  
 青皮白蠟石鍾酥  
 奇珍美料稱玆土  
 物產由來八路無

진기한 물건들이 다른 지방에는 없고 제주섬에만 있다는 것을 읊은 영물시이다.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진상용품이었다는 사실을 표출하고 있다. 진기하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물건의 진상품과 그 진상품을 구하기 위해 애쓴 제주섬 사람들의 고통스런 노고는 비례한다.

제주에서 조정으로 진상되는 물품은 이밖에도 상당히 많다. 진상품을 구하기 위하여 섬 사람들은 목사가 바뀔 때마다 시달려 왔으며 세세년년 다달이 부대껴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다. 도민들의 土貢品目만을 보더라도 쉬 짐작이 가는 일이다.

玳瑁, 蕪膏, 牛毛, 樞子, 柑子, 柚子, 乳柑, 洞庭橘, 金橘, 青橘, 山橘, 全鮑, 引鮑, 槌鮑, 條鮑, 烏賊魚, 王頭魚, 昆布, 山柚子木, 二年木, 樞子木, 良馬, 藥材, 陳皮, 山藥, 石薺, 草薺, 川練子, 白芷, 八角, 零陵香, 五倍子, 梔子香, 附子, 木瓜, 紫胡, 青皮, 白扁豆, 草烏頭, 海東皮, 厚朴, 烏魚骨, 杜沖, 蔓荊子, 石決明, 半夏, 黃菊, 鹿茸, 舶上, 茴香, 枳殼<sup>35)</sup>

## 6. 流配와 그 詠懷

열아홉째 장  
 겨울엔 매운 바람에 시달리고 여름엔 지리한 장마인데  
 벌레와 뱀은 독기가 많고 서로 번갈아 침범한다네.  
 주민들은 산에 범이 없음을 요행으로 생각며  
 밤중 깊은 수풀 지나면서도 마음을 놓는구나.

其十九  
 冬日苦風夏苦霖  
 蟲蛇多毒更相侵  
 居人只幸山無虎  
 夜過深林亦放心

제주는 물이 깨끗하고 맑아서 보통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적은 대신 풍토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 생활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독충과 뱀 등으로 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도 모진 바람과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니 유배당한 사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35) 「世宗實錄」地理誌

대단한 마당에 모진 바람과 독층에 시달린다는 것은 유배인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sup>36)</sup> 제주섬 사람들이 산에 범이 없다고 마음놓고 돌아 다닐을 부러워하면서 회헌 자신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스무째장

봉우리 높아서 바라보니 하늘에 닿아  
기승하여 백룡담이라 불리네,  
들으니 산방도 또한 가경이라  
동그런 석굴이 암자 같다네

其二十

峰高穴望與天參  
奇勝仍稱白鹿潭  
聞說山房亦佳境  
穹然石窟坐如庵

제주의 많은 경관 중에서 백룡담과 산방굴을 읊은 영물시이다. 듣건대 경치좋은 산방굴속에 앉으면 암자에 앉은 것 같다. 그러한 암자에서 도를 닦는 수도승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시는 유배된 심정, 온갖 세상사와 시름을 잊어버리고 자연을 응시하면서 거기에 몰입한 정황을 노래하고 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문학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표출하고 외부에 소개한 이들도 또한 유배인들이었다.<sup>37)</sup>

스물한째 장

바닷길 아득하여 구백리가 넘는데  
돛단배는 순풍이 부는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네,  
사공이 가장 마음 쓰는 일은  
화탈도 서쪽 수세가 요동치는 곳이라네.

其二十一

海路蒼茫九百遙  
帆樯必待好風朝  
行人最有勞心處  
火脫島西水勢搖

그 언젠가 자기를 싣고 갈 배의 돛은 잔잔한 바람이 이는 아침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바닷길은 망망하고 멀기만 하다고 읊은 자탄시이다.

회헌은 그 돛을 바라보며 어서 빨리 출륙해서 복권할 날을 고대하고 있으나 성은이 미치기에는 너무나 망망하고 먼 바다이다.

유배당한 자신의 우울한 처지를 달래고 있는 회헌은 그 돛과 창망한 바다를 보았을 때 더욱 갈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는 조용히 자기 내면에서 바깥으로 눈을 돌려 유배적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코가는 해로에는 화탈도가 있다. 그리고 화탈도에는 대화탈도와 소화탈도가 있다. 대화탈도

36) 李健, 「제주풍토기」, 「瘴癘所纏 海毒所蒸……最苦者粟飯也 最畏者蛇蝎也」

37) 瀛洲十景을 한시로 읊은 것은 유배인이었다고 추정된다. 1933년 조무빈의 〈李在秀實記〉와 김두봉의 〈濟州島實記〉 속에 〈瀛洲十景歌〉가 수록되고 있는데 가사 형식이다.

는 추자섬 남쪽에 있는데 돌봉우리가 삐죽삐죽하고 그 꼭대기에 썸이 있으나 수목이 없고 소화탈도는 추자섬 서남쪽에 있어 벽이 깎아지른 듯한 속칭 관탈섬이라고도 한다. 두 섬 사이에는 해류가 부딪쳐 파도가 험하여 배들이 표류 침몰하기 때문에 왕래자도 매우 고통을 받는다. 유배인들이 관탈섬을 지날 때는 지난 날의 미련이나 회향에의 정감도 떨쳐 버리고 오직 유배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모와 의관을 벗어버렸다는 전설이 아직까지 전해 지고 있다. 회헌은 그런 요동치는 화탈도 서쪽 수세를 언제면 건너갈 것인가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 스물두째 장

풍파와 장려로 나그네 수심에 잠기니  
대죄로 제주에 유배됨도 마땅하구나.  
나는 스스로 속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귀양와서 영주에 살고 있네.

## 其二十二

風波瘴癘客堪愁  
大罪適宜此地投  
自是吾人非俗骨  
謫居猶得在瀛洲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자기 체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시이다. 여러가지 회향에 찬 감정을 압축시켜 표현하고 있으며 조용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며 체념하는 심정으로 유배당한 사실을 심적으로 부인함을 노래한 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유배당하여 적거한다고 하기보다 제주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자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치하던 시절, 두고은 가족, 봉당에 대한 추억, 군왕에 대한 회포의 정 등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를 견뎌내야 하는 회헌은 유배적 상황에 처한 자신의 감정을 이 시를 통하여 승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 耽羅雜詠의 國文學史的 位置

한 시인의 작품은 바로 그 시인의 분신이다. 한 시인의 국문학사적 위치를 설정함에 있어 그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분석 고찰하여야만 완전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梅軒의 「耽羅雜詠」 22수만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유배인들은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배생활을 소중한 창조적 공간으로, 창조적 계기로 만들어 제2의 생명을 걸어야만 했다. 여기서 유배지에서 창조적 정열로 스스로의 절망을 이겨낸 유배인들은 절망을 넘어선 영원히 시들지 않은 찬란한 문학의 꽃을 남겼다.

이것은 유배인들이 유배에서의 격리된 생활을 자기완성을 위한 창조적 계기로 수용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다. 현실에서 격리되었을 때 그러한 소외상태에서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여러가지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모순에 대한 극복 논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배시가가 신상탄과 은둔도피, 우시연군 등을 주로 다루었음에 비해 회헌 조관빈

의 「耽羅雜詠」 22수는 그러한 특성보다 귀양살이 하고 있는 제주섬의 역사, 풍속, 사회, 풍물, 인 정 따위를 노래하고 있어 竹枝詞類의 시와 같은 특성이 강하다.

대체로 한국시가에 나타난 지명, 인명 등은 중국의 것이 많이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배를 계기로 자기 고향을 떠나 타지방으로 격리되었다는 것은 타지방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이상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회헌은 불과 8개월 밖에 안되는 제주섬의 유배생활을 통해 중국과 중앙 일변도의 문학의 소재를 버리고 제주섬의 역사, 신화, 풍습, 생활상 등을 잡영이란 연작시 형태로 읊었다. 이것은 국문학사상 특기할 만한 일이다. 유배지에서 읊은 죽지사류의 잡영은 유배지 제주섬에서 씌어진 정조 때 靜軒 趙貞誥의 「耽羅雜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충분한 그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후일 옹희 3년경 김문숙의 「耽羅竹枝詞」도 위의 잡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VI. 結 論

제주섬은 정치적 유배자가 流三千里의 형으로 위리안치되는 최악의 유배지였고 그 중 대정현은 원악지 도배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제까지 영조 때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梅軒 趙觀彬의 「耽羅雜詠」 22수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 고찰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배문학이란 유형수가 조선조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유배되어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문학화한 것이다. 특히 제주유배 문학은 제주섬에 유배되었던 유형수들에 의해 형성된 문학을 뜻한다.

2) 회헌 조관빈은 1731년(영조 7년) 대사헌에 재직중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 李光佐를 탄핵하였다가 당파심에 의한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하였다는 이유로 영조의 배척을 받아 제주섬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었던 유배인이다.

3) 회헌 조관빈은 절해고도인 제주섬에서의 유배기간을 제주섬 사회의 실정을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유배적 상황에 직면, 치열한 자아성찰을 통하여 우수한 유배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4) 회헌 조관빈의 「耽羅雜詠」 22수에 나타난 그의 문학세계는 제1수에서, 제22수까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비로소 회헌은 자신의 경험세계에 제주섬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제주섬의 자연·풍속 등을 소개, 국문학의 소재 확장에 지대하게 공헌하였다. 고전시가의 소재가 주로 중국을 소재로 하거나 중국지명 또는 고사를 원용한 것이 지배적임에 비해 「탐라잡영」은 유배지의 지명과 유배지를 소재로 하여 시를 형상화 했다는 점에서 그 국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5) 梅軒 조관빈의 「耽羅雜詠」에는 첫째 耽羅 詠物과 神話, 둘째 耽羅 詠史와 戀君, 셋째 流配 地의 환경과 五賢祠, 넷째 耽羅의 生活 風俗, 다섯째 耽羅의 진상품들, 여섯째 유배와 그 詠懷 등이 표출되어 있다. 그 중에도 제주인의 생활상, 異俗적인 풍경, 노인장수, 감귤과 진상품, 유배된 자신의 불우한 詠懷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6) 회헌의 「耽羅雜詠」 22수는 다른 유배시가의 내용이 신상탄과 은둔도피, 우시연군 등이 지배적임에 비해 귀양살이 하고 있는 제주섬의 역사, 사회, 풍물, 풍습, 인정 등을 읊어서 竹枝詞類의 시의 내용을 읊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회헌 조관빈의 「탐라잡영」은 훗날 정조 때 대정현에 유배된 그의 종손자인 靜軒 趙貞喆의 「耽羅雜詠」을 형성케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루어진다.

7) 회헌 조관빈의 「탐라잡영」을 바탕으로한 그의 문집 「梅軒集」에 수록된 시문학의 총체적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Summary

A Study on Hoe-hon Cho Kwan-bin's  
"Tamna Miscellaneous Poems"

*Yang Soon-pil, Kim Yoon-jung*

Cheju Island was one of the worst places of exiles. Many an exile suffered political ostracism had been sent to the remote island and there confined in the house enclosed with a hedge of thorny bushes. The prefecture of Taejong-hyon in Cheju was the typical rugged country for banishing.

So for in the paper there have been analyzed the 22 pieces of "Tamna Chabyong (Miscellaneous Poems) written by Cho, Kwan-bin during his exile in Taejong.

The summary is as follows :

1) Literature of exile is to be defined as a form of literature which shows direct experiences, emotions and spiritual lives of a writer and politician exiled owing to the periodical and political state of the Choson Dynasty. Especially, literature of Cheju-exile was the literature formed by exiles banned to Cheju Island during their exile.

2) Hoehon (Cho, Kwan-bin's pseudonym) was exiled to Taejong by king Youg-jo for bearing a factual grudge against a minister.

In the 7th year of King Yong-jo(1731), serving as Taesahon, he had impeached Yi, Kwang-jwa, the leader of the party of Soron, for Shinim Sahwa(The Shinim Calamity of Savants) by way of presenting a memorial to the king.

3) Hoehon spent the period of exile usefully, recognizing the social realities of the isolated island. Through his severe self-examination, he created remarkable works of literature of exile, confronting the difficulties of exile.

4) His literary works showed in "Tamna Chabyong" are characterized by successive construction from the 1st poem to the 22nd poem.

The poems show his recognition of the island as his own experiential reality. He poetized the nature and the custom of the island itself, which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the expanding subject matters of Korean literature. While most subject matters of classical poetry had close relations to place names of China or Chinese

folklore, the subject matters of "Tamna Chabyong" have relations to place names of exile and the island itself. In this respect the poems have a historic significance of Korean literature.

5) In the poems, there are described such as follows : first, the location of Tamna and Mt. Halla and myths; second, the history of Tamna and the longing for the King; third, the condition of the place of exile and the history of O-hyon; fourth, the ways of lives in Tamna and the custom; fifth, the presents to the King; last, the exile itself and emotions. Among them, there are specially well-described the living conditions of Cheju countrymen, the scenery of strange customs, an old peddler, the oranges and presents to the King, and the exile's miserable emotions.

6) While the characteristics of many other poems of this kind lie in the general composition of seclusion, escape, patriotic, sentiment, wailing ill fortunate and longing for the King, those of "Tamna chabyong" lie in the composition of such as the history, society, scenery and customs and manners of the place of exile.

And it can be said that Hoehon's "Tamna Chabyong" had an influence on the same-titled poems composed by Cho, Chong-ch'ol (Chonghon), who was Hoehon's brother's grandson and was exiled to the same place in the years of King Chong-jo.

7) The whole poetry written in Hoehon-jip, a collection of Hoehon's works, are supposed to be studied in general on the foundation of study on "Tamna Chabyong".